

<2011년 4월 20일 수요일말씀>

주님 뜻이 아닌 길을 감으로 찾은 고통을 받으면서 '이것이 내 운명이다.' 생각하느냐?

본 문 예레미야 21장 8절
시편 1장 1-6절
잠언 2장 14-19절
잠언 4장 18-19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마태복음 7장 13-14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주일말씀에 이어서 이미 정해져 있는 두 가지 인생길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렘 21:8).” 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1편을 보면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는데,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라도 악인의 길로 가면 길 자체가 악한 길이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가면서 각종 고통을 받고 필경은 사망에 이르러 영도 육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이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길로 가면 형통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행위가 의로워야 생명길로 가게 됩니다.

세상의 높고 낮은 많은 산들을 보면, 산 자체가 아주 험한 악산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인데, 숲이 우거지고 걷기에 아주 편한 산이 따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길 중에서도 삶의 길 자체가 악한 길이 있습니다. 마치 악산처럼 인생의 악한 사망의 길, 필경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험한 악산은 누가 가든지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인생의 악한 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길은 누가 가든지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로서 그 길로 가면 흑암으로 가게 되고 필경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평지같이 편한 산은 누가 가든지 쉽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선한 생명길은 안전하고 편한 산과 같아서 누가 가든지 편하고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정해진 인생길이니 모두 확인하고 알고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길 자체가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알고 아예 사망길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경은 지옥으로 가는 사망길을 가면서 잘 되려고 마음먹고 수고한다고 해서 잘되겠습니까? 그 길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기도와 선행과 노력도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그 길을 가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하고 선을 행한다 해도 길 자체가 지옥길이니 영생이 없고 필경은 사망, 음부, 무저갱,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로 알고 아예 그 정해진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아예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힘은 들지만 노력하고 수고하는 대로 얻게 되고 필경은 잘되고 형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때는 좋은 길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에 다닙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천국길로 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서 잘살기 위해 각종 우상들을 정성을 다해 섬기고 삽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그 영혼이 좋은 영의 세계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

의 길입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오직 이 두 길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의롭게 사는 육신의 영혼들은 천국으로 가는 영생길, 빛의 길, 좁은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길 자체가 아예 생명길로서 필경은 천국으로 가는 밝고 찬란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고 악하게 사는 자들, 우상을 섬기며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믿어도 진실로 믿지 못하고 형식으로 믿는 자들은 모두 무거운 죄 짐을 지고서 어둠이 깔린 넓고 넓은 악한 길, 사망길, 어둠의 길, 넓은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길 자체가 아예 사망길로서 필경은 지옥으로 가는 흑암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 두 길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영의 세계를 보여 주시어 보니 확실하게 두 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선하게, 혹은 악하게 사는 삶에 따라서 각각 좁은 생명길로, 혹은 넓은 사망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정해진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 두 길이 있습니다. 실패길을 가는 자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길 자체가 필경은 실패하는 길이라 고생만 하고 실패하고 마니, 그 길을 가기 전에 정해진 실패길인지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길로 가면 누구든지 성공하게 됩니다. 고로 가기 전에 자신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확인받고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의 길, 인생 성공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혹은 사망의 길, 인생 실패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이 둘 중의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 육신이 사는 행위에 따라 정해진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사망의 길, 실패의 길로 가면 필경은 육도 실패하고 영혼도 사망의 세계로 가서 멸망하고 맙니다. 사망길, 실패길로 가면서 잘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투자하고 열심히 해도 그 길은 이미 사망의 길이라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망길, 실패길로 가면서 자기 삶을 한탄하며 ‘정해진 운명인가?’ 생각합니다. 길 자체가 정해져 있지,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잘되려면 영생길로 가야 합니다.

<영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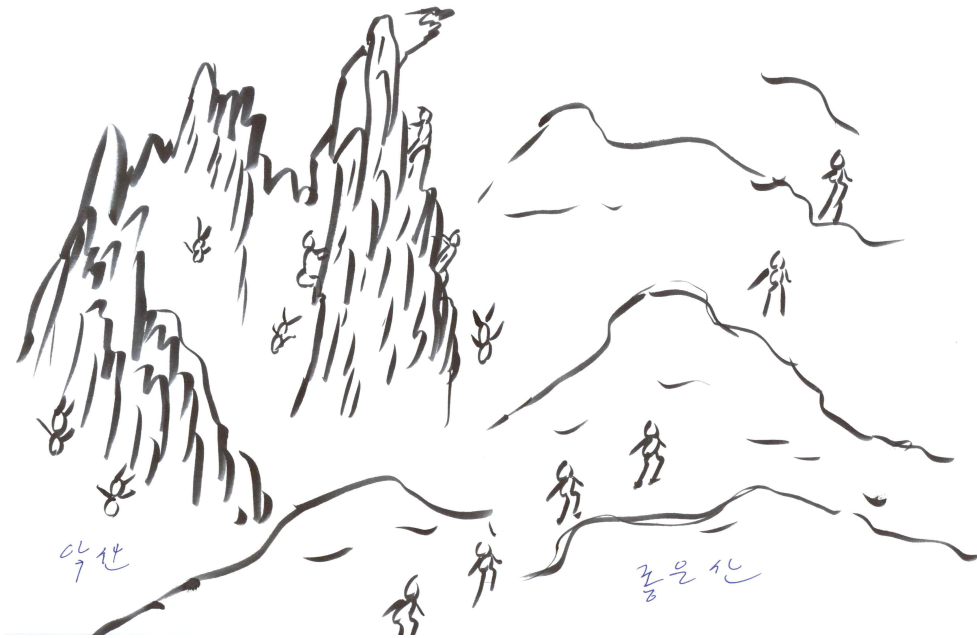
<자막>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21:8)』

①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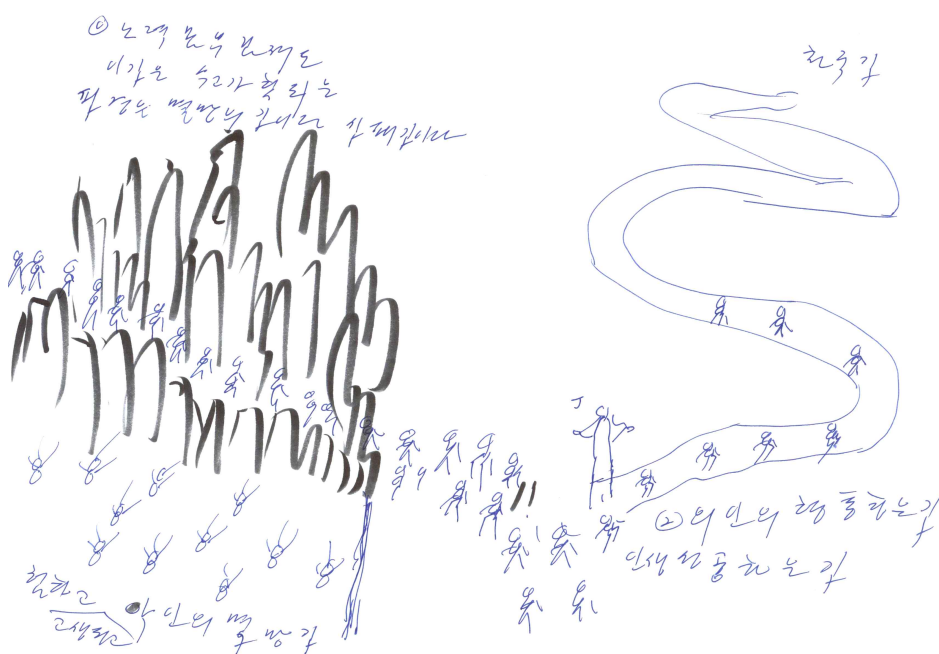
<자막과 설명>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길, 영원한 실패의 길입니다. 또 한 길은 필경은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길, 영원한 성공의 길입니다.

② 악산과 좋은 산



<자막과 설명> 험한 악산은 누가 가든지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악한 길은 누가 가든지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로서 그 길로 가면 흑암으로 가게 되고 필경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평지같이 편한 산은 누가 가든지 쉽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선한 생명길은 안전하고 편한 산과 같아서 누가 가든지 편하고 좋습니다.

③ 실패의 길과 성공의 길



<자막과 설명> 인생에도 실패의 길과 성공의 길, 이렇게 두 길이 있습니다. 실패의 길로 가면 그 자체가 실패의 길이라서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이 길은 필경은 사망으로 가는 멸망의 길입니다./ 성공의 길로 가면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얻게 됩니다. 이 길은 필경은 생명으로 가는 길로서 의인의 행통하는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자막과 예수님 말씀> 이같이 정해진 인생길이니 모두 확인하고 알고 가라.

④ <자막>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13-14)』

-영계의 좁은 생명길과 넓은 사망길 그린 것 넣기.

넓은 사망길로 가는 자들이 죄 짐 지고 가는 모습이 나오며...

<자막과 설명> 이 넓은 사망길을 가면서 잘되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도 안 됩니다. 이 길은 길 자체가 사망길이라서 필경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믿어도 형식으로 믿는 자들, 자기 죄를 진정으로 행실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사를 악평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며...

<자막과 설명>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믿어도 형식으로 믿는 자들, 자기 죄를 진정으로 행실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사를 모르고 반대하고 악평하는 자들은 넓은 사망길로 갑니다.

<자막>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6)』

사람들은 앞날에 어떻게 될지 알기 위해 사주팔자도 보고, 점도 보

고, 손금도 보고, 관상도 봅니다. 점쟁이들이 ‘손금이 좋다. 관상이 좋아서 잘되겠다. 사주팔자를 보니 큰 재물을 얻겠다.’ 하더라도 필경은 사망길, 실패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어 마음만 기쁘지, 실상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추락할 비행기를 타고 가던 자가 도중에 점을 쳐 주는 자를 만나서 사주팔자가 좋고 관상과 손금이 너무 좋아서 큰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대길하겠다고 점을 쳐 주어도 이미 추락할 비행기에 타서 필경은 죽음이 기다리니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격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애초부터 영원한 생명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성공으로 가는 정해진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수고하기 전에 먼저 잘되는 생명길이 어떤 길인지 분별하고, 최우선으로 생명길을 선택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생명의 길이 되시고 성공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 묻고, 자신도 책임분담 하여 알아보고 떠나야 됩니다. 생명길, 성공길을 가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몸부림을 쳐야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사망길, 실패길은 아예 실패로 사망으로 정해진 길 그 자체이므로 누가 가든지 그 길을 가면서 수고하고 몸부림쳐도 필경은 사망길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하고, 사기 당하여 재산을 날린 자들은 수고하고 몸부림쳐 노력하지 않아서 망하고 손해 본 것이 아닙니다. 목이 돌아가고 골반이 돌아가고 어깨와 팔다리가 뭉치도록 몸부림쳤는데도 아예 실패의 길로 갔기에 결국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실패길로 가면서 잘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지옥길로 가면서 주님께 잘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몸부림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출발부터 사망길, 실패길로 갔기에 그같이 수고하고 몸부림쳤어도 실패한 것입니다.

모두 이 말을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아주 차원 높고 깊은 말씀입니다.

다. 이를 깨닫고 알고 행하면 실패하지 않고 필경은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지금 주님이 해 주신 말씀으로 전초하는 것입니다.

섭리사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선생과 면담하고 지도자들과 면담하면 아예 해 보지도 못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지도 못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서 생각하기를 ‘아니,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지? 명예는 어떻게 얻지?’ 합니다.

그 길은 가나 마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원치 않는 길이며 실패의 길이기 아예 못 가게 하는데 그 뜻을 모릅니다. 그 길은 반드시 이성으로 타락하고 잘못될 길임을 알기에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만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간 자들은 돈은 벌고 명예는 얻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실패길이니 영적으로 보나 육적으로 보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영혼은 사망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막 살려면 뭐하러 교회에 다닙니까? 영원한 세계에 가려고 생명길을 가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를 얻고 돌아오다가 죽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길로 가면서 명예와 권세도 얻어야 영원히 누립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은 사망길입니다. 선생도 그동안 섭리사를 이끌어 오며 많은 자들을 면담해 주어 잘되라고 세상에 내보내기도 했는데, 결론은 가면 갈수록 세상길로 갔습니다. 이성으로도 다 실패하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망길은 목숨을 내걸고 해도 사망길이라 필경은 사망으로 끝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을 하되, 필경은 사망으로 끝나고 마는 길이 있기에 그 길로는 아예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일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길로 온 자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술로 영광 돌려 하늘 예술인들이 되었고, 또 하늘의 영원한 명예도 얻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길 자체가 생명인 생명길로 와서 그 영도 육도 생명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생명길을 가려면 사망길에서 얻은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길에서 얻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길에서 얻어야 명예도 공적도 천국까지 가지고 가게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길에서 성공하는 길을 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술을 하며 자기 재능도 개발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고의 대가를 다 얻게 됩니다.

선생은 세상길로 가지 않고 모두 접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길로만 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명예, 권세, 물질 다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명예, 권세, 물질 다 얻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세상을 접하며 살더라도 주님 안에서 다스리며 생명길로 가면서 모든 축복을 얻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권세가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 권세입니다. 주님 안에서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최고 권세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된 것이 최고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신앙의 명예자와 권세자들이 되고, 신앙의 스타들이 되어라.” 하셨습니다.

<영상2>

① 사주팔자, 손금, 관상, 족상 보는 모습

사주팔자가 좋지만 사망길로 가는 모습

<자막과 설명> 사망의 길, 실패의 길을 가면서 사주팔자와 관상과 손금과 족상이 잘 나오면 뭐합니까? 사주팔자가 좋은데 실패하고 망하

는 얻었어도 필경은 실패와 사망입니다. 그 영혼은 사망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④ 사망길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수고하는 모습

그러나 점점 더 함정으로 빠지고,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모습
<자막과 예수님 말씀> 사망길에서의 기도와 몸부림과 수고와 노력은 모두 헛되다.

⑤ 선생님 : 고생하며 산에 기도하러 다니는 모습,

비 맞고, 눈 맞고, 산 열매 따 먹으며 고생하는 모습
예수님 따라다니며 전도하고, 집 짓고, 월명동 개발
마지막 주님의 사랑, 시대 말씀 얻은 것 표현

<자막과 설명> 선생은 세상길로 가지 않고 모두 접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길로만 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명예, 권세, 물질을 다 얻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시대 말씀을 얻었습니다.

⑥ <자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2)』

-해당 영상 없이 자막과 말씀만 나가도 되고, 알아서 넣어도 됨.

<자막과 예수님 말씀으로 마무리> 나의 뜻대로 살면서 나의 사랑하
는 신부가 된 것이 최고 권세다. 너희가 신앙의 명예자와 권세자가
되고 신앙의 스타들이 되어라.

사람들은 인생의 갖은 힘든 길을 가면서 곤고, 고통, 허무를 당하지
않고 싸워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삽니다. 그러나 해결되
지 않습니다. 그 길은 아예 실패와 사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곤고, 고통,
허무가 해결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길로 나와야 됩니다.

바다는 항상 밀물과 썰물이 오고 갑니다. 또한 파도가 끊이지 않습니
다. 고로 바다에서 나올 때까지 그곳에서 수영하면 밀물과 썰물, 그리고
파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예 예정된 바닷물입니다. 거기서 나오면 물이
없는 줄 알아도 호수, 강, 수영장이 있습니다.

인간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기보다 운명의 길이 정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과 곤고와 사고와 죽음과 멸망으로 정해진 운명의 길을 가면서 자신의 운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길의 운명입니다. 고로 아예 실패와 사망으로 정해진 실패의 길, 사망의 길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길은 필경은 실패요, 음부요, 무저갱이요, 지옥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실패의 길로 가더라도 그 길이 필경은 실패와 사망을 낳고 마는 길인지 전혀 모릅니다. 오직 영계로 봐야 ‘이같이 사는 삶은 영혼이 사망으로 가는구나.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살아야만 영혼이 영원한 천국길로 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육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지, 그 상태에 따라 자기 영의 상태가 좌우됩니다. 자기 육의 상태를 보고 자기 영이 어느 수준에서 영계 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 영이 확실히 생명길로 가는지 봐야 됩니다. 지도를 보고 방향을 보고 확인하면서 인생을 조종해야지, 그냥 가기만 하면 어느새 사탄 주관권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비행기가 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상공을 날아가다가 공산주의 항공로를 침범하면 ‘꽁’ 하고 포탄을 쏘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가 사탄 주관권을 침범하면 사탄이 악 포탄을 쏘고 잡아갑니다.

항공로도 공산주의 항공로가 따로 있고 민주주의 항공로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도 악인이 따로 있고 의인이 따로 있습니다. 가인이 따로 있고 아벨이 따로 있습니다. 성격도 내성적인 성격이 있고 외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인생들도 보면 결혼만 하면 이혼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남자나 여자와 결혼하면 다 이혼입니다.

길도 함정이 따로 있습니다. 길이 함정이니 어떤 차라도 그곳을 지나가면 다 빠집니다. 고치기 전에는 1000대, 10000대라도 다 빠집니다. 사람도 나쁜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 교만한 병도 죽을 때까지

평생 가고, 필요에 따라 변질되는 마음도 평생 갑니다. 고치기 전에는 연속됩니다.

사람도 길과 같이 체질적으로 타고납니다. 성격, 행동, 말투 고쳐야 운명이 바뀝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한 태 속에서 타고납니다. 고쳐야 변화됩니다. 안 고치면 그 성품이 70~80년 갑니다. 그 성품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입니다. 그러다 필경은 실패로 끝납니다.

선생도 예수님도 성품 좋은 자를 데리고 갑니다. 나쁜 성격, 악한 성격을 꼭 고쳐야 됩니다. 자기가 고쳐야 됩니다. 선생이 그 성격을 고쳐서 데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자니 선생의 운명까지 바뀝니다. 자기 나쁜 성품을 고치는 것은 자기 책임분담입니다. 자기가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는 잘 모릅니다. 좋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성격을 확인하고 고쳐야 됩니다.

선생은 인물이 잘생겼기보다 성품이 좋다고 합니다. 20년간 나쁜 성격을 고쳤습니다. 스스로 기합을 주고 각종 대가를 주면서라도 고쳤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고치라고 해도 자기가 안 하면 못 고칩니다. 자기가 고치려고 해야 고쳐집니다. (아멘.)

<영상3>

① 바닷물과 민물

(파도가 끊이지 않는 바다 / 잔잔한 호수, 강, 내, 수영장)



<자막과 설명> 바다는 그 자체가 항상 밀물과 썰물이며 파도입니다. 거기서 나올 때까지 밀물과 썰물과 파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예 파

도가 드높고 밀물과 썰물이 있는 예정된 바다입니다.



<자막과 설명> 잔잔한 호수가 있고, 강이 있고, 내가 있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는 아예 정해진 잔잔한 물의 운명입니다. 바닷물에 들어가서 파도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잔잔한 민물로 가면 됩니다.

② 사망길과 생명길

(고통, 허무, 곤고가 끊이지 않는 사망길 / 생명길)

<자막과 설명> 이와 같이 인생길도 바다같이, 혹은 호수같이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길의 운명입니다. 가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아예 실패와 사망으로 정해진 길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③ <자막> 자기 신앙이 잘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여라.

-비행기가 방향을 점검하지 않고 날아가다가 공산주의 항공로를 침범하는 모습 / 이에 공산국에서 침범한 비행기에 포를 쏘는 모습 / 포를 맞는 비행기가 폭발하고 추락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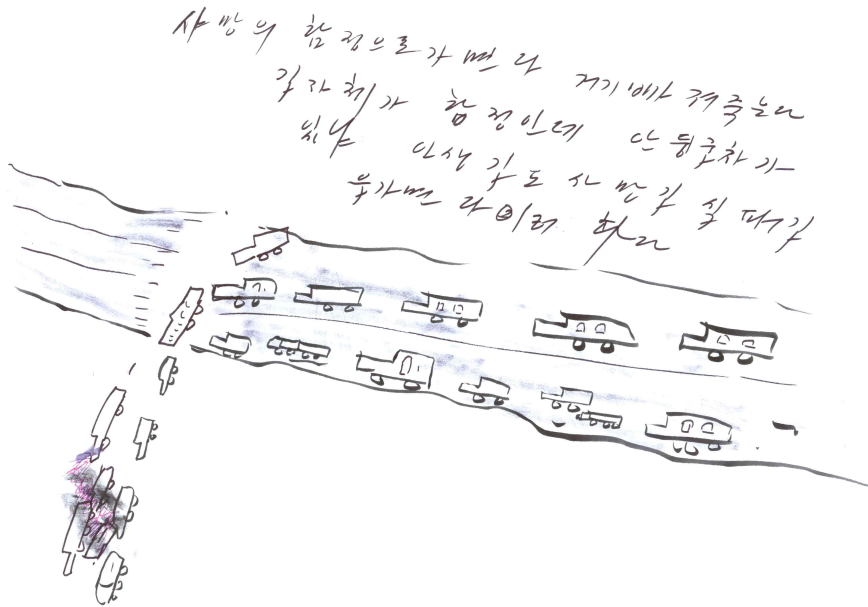
<자막과 설명> 항공로도 공산주의 항공로와 민주주의 항공로가 따로 있습니다. 비행기가 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가다가 모르고 공산주의 항공로로 가면 포탄을 쏘서 추락시킵니다.

④ 자기 신앙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가다가 사탄 주관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 / 사탄이 잡아가는 모습

<자막과 설명> 자기 신앙이 잘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자

기 신앙 상태를 확인하면서 인생을 조종해야지, 그냥 가기만 하면 어느새 사탄 주관권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악 포탄을 쏘고 잡아갑니다.

⑤ 함정



<자막과 설명> 사망의 함정으로 가면 모두 다 거기 빠져 죽습니다. 길 자체가 함정인데, 안 뒹굴고 안 빠질 차가 있겠습니까? 인생들도 사망길, 실패길로 가면 모두 이러합니다.

⑥ 사탄 주관권 사망 세계 / 하나님 주관권 생명 세계



<자막과 설명> 인생들도 나쁜 성격을 고치지 못하면 누구든지 사탄 주관권으로 빠지게 됩니다. 계속 고치지 않으면 필경은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교만, 불평, 악평, 의심, 때마다 변질되는 마음을 모두 고치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생명권 세계에서 사는 자를 주님은 데리고 가십니다.

이제부터 인생의 생명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의 길이 되시고, 성공의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상4> 예수님 출현

<예수님 말씀>

나 예수가 너희 모두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인생 사망의 길과 실패의 길을 가면서 몸부림치며 성공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길은 사망이 예정된 길이라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필경은 실패요 망하게 된다.

고로 애초부터 인생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인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사망의 길인가 알고 가라는 것이다. 또한 세상 어떤 일이든지 하기 전에 생명의 길로 가는 일인가, 사망의 길로 가는 일인가 알고 하라는 것이다.

실패의 길, 사망의 길, 흑암의 길을 가면서 나 예수를 부르고 내 아버지를 부르면서 잘되게 해 달라고 하면 축복해 주겠느냐. 사망길로 가는 자를 축복해 주겠느냐. 사망길로 가면서 내게 잘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갖은 몸부림을 치고 수고한 자들은 필경은 실패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끝나고 말았다.

매사에 사람들이 하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는데, 크게 쪼개 놓고 보면 사망길과 생명길, 실패길과 성공길이 있다. 고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알고 하고, 시작하기 전에 알고 가라. 이것이 너희가 실패하지 않고 헛수

고하지 않고 헛고통을 당하지 않고 사는 길이다.

너희는 평생 살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완전히 확인하고 파악하고 알고 하여라. 어린아이고, 청년이고, 어른이고 모두 그러하다. 너희 인생 앞에는 이미 길 자체가 실패의 길, 아니면 성공의 길이 따로 있으니 분별하고 가야 된다. 분별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가기에 모두 실패하고 해를 당하고 화를 받고 갖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바르고 좋고 이상적인 길 같아도 필경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 많고도 많다. 확인, 확인, 또 확인이다. 내게 간절히 기도하고 파악하여라. 내가 한 말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나와 함께 대역사를 한다. 내가 한 말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평생 사고와 해됨이 없다.

생명길과 성공길에는 길 입구마다 나 예수가 서 있다. 고로 너희가 그 길로 들어가기 전에 내게 물어라. 어떤 작은 일도, 큰일도, 사업도 내가 허락하면 행하여라. 사망길은 작으면 작은 대로 사망길이고, 크면 큰 대로 사망길이다. 사망길은 필경은 물질과 시간과 생명의 손해를 보게 된다.

고로 나 예수가 너희 선생을 통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하면 ‘좋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길, 성공의 길만 말해 준다. 너희가 모르니 너희 선생을 통해서 말한다.

세상의 성공길, 생명길은 나 예수가 인정하는 길이 아니다. 오직 나로 말미암은 길만 성공길이요 생명길이다. 사망길, 실패길, 유혹의 길, 사기 당하는 길, 이용당하는 길, 악한 자들이 거짓으로 속여 착하고 의로운 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는 길이 많으니 절대 나 예수의 말을 듣고 가라.

이 세상의 길은 거의 실패의 길, 이용당하는 길, 사람을 홀리는 길이다. 처음에는 유익이 되고 돈도 벌지만 그 길 자체가 사망의 길이라서 필경은 사망, 실패, 멸망으로 끝난다. 이성으로 가는 길, 타락으로 가는 길은 누가 가더라도 필경은 죽음의 길이요, 자기 영혼을 흑암으로 보내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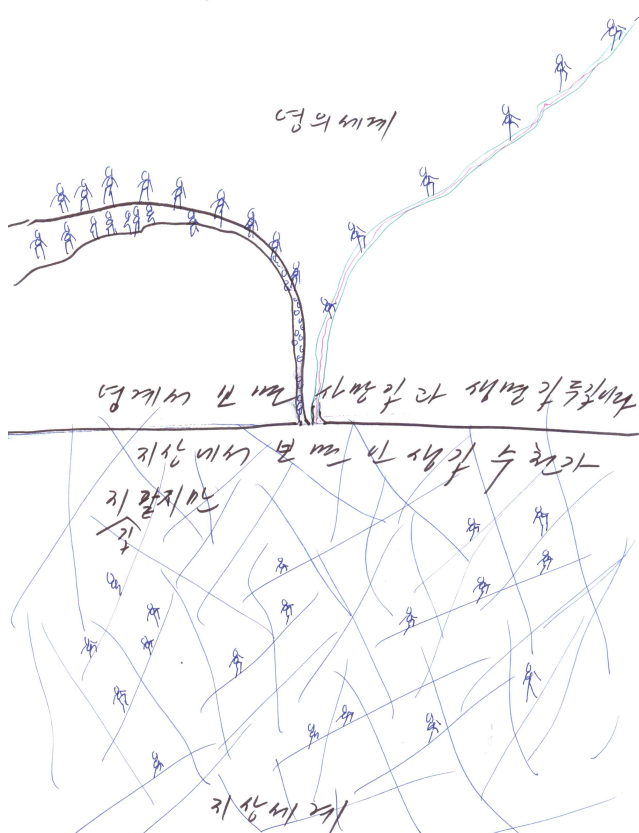
이제 생활 속에 매일 근신하며 실천하자. 너 혼자 하면 안 된다. 나와 함께 하자. 나는 사망길, 실패길로 가는 자와는 대역사를 하지 못한다. 사망길, 실패길을 가는 자들을 내 어찌 도울 수 있겠느냐. 사망길로 가는 자를 도와주면 그 힘으로 사망길을 더 가기에 돕지 않는 것이다.

나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영생이다. 나 예수를 통한 길이어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특히 지도자들이 잘못 알고 실패길로 가면 따르는 자들까지 실패와 사망길로 가게 된다. 교회의 공적인 일은 항상 나와 의논하고 내가 보낸 자와 의논하여 항상 생명길로 가야 된다. 자기 인생 진로의 길, 삶의 길도 모두 나 예수에게 간구하여 알고 가야 된다.

너희를 사랑하는 주 예수다. 살롬!

<영상5>

① 인생의 두 길 (사망길과 생명길)



<자막과 말씀> 세상에서 보면 인생길이 수천 가지 같지만, 영계에서 보면 인생길은 사망길과 생명길, 두 길이다.

② <자막> “나의 뜻이 아닌 길을 감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이것이 내 운명이다.’ 생각하느냐?



<자막과 말씀> 오직 나 예수만이 생명길의 문이요, 길이다. 나 예수만이 진리의 길이다. 그릇된 진리의 길은 사탄의 길이다.

③ 예수님 인사 “내게 와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샬롬!”

<마무리 자막>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